

신암 제140호 / 발행일 : 2022년 11월 20일

신암회보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

(요4:23~24)

담임목사 칼럼_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 특집 1.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예배 및 아웃리치 사역
2.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3. 대구신암교회 공원묘원 준공예배

신앙간증_ 아름다운 신앙수련회

가을로 내려가는 길

김종광

쪽빛으로 멀어지는 하늘길
청색으로 깊어지는 물길
원색으로 돌아가는 낙엽길
사색으로 물드는 마음길
가을날 마추치는 이정표마다
가을로 내려가는 길이라 적혀있다

CONTENTS

02 좋은 글

04 담임목사 칼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06 목자의 우물가

익숙함

- 김두리 목사

07 특집_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예배 및 아웃리치 사역

필리핀 땅에서 선교의 열매를 보다!

- 박송기 담임목사

헌당예배

- 석상철 장로

협력교회 방문

- 서재기 장로

15 “리빌딩[REbuilding]”

- 정수용 성도

“왕을 환영하라”

- 정 옥 집사

16 신암평생교육원 유니게학교

가을학기 유니게학교를 개교하며

- 조순래 전도사

17 만나복지 겨자씨토요학교

사랑이 넘치는 겨자씨토요학교

- 김정희 목사



08 산부예나 밥퍼사역

- 이경희 권사

짧은 간증 모음

- 송승면 장로, 이은우 장로

박영자 권사, 윤영인 권사

윤용택 안수집사, 신재원 집사

11 특집_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찾았다~ 하나님 나라”

- 김수경 권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 이미숙 집사

복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 김영미 권사

“WHO ARE WE? 복음 라이더스”

- 정은유 어린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 임광근 성도

믿음의 터 위에서

- 정예찬 학생

‘네 삶의 주인을 기억하라’

- 김민재 학생

18 신앙간증

아름다운 신앙수련회에 다녀와서

- 유문권 은퇴집사

아름다운 신앙수련회를 준비하면서

- 권원자 권사

19 특집_ 대구신암교회 공원묘원 준공예배 신암동산 조성공사 경과보고

21 교회 소식(Photo News)

23 선교지소식_ 케냐

김성영&윤선경(유건, 유현) 선교사

25 새가족 소개

26 온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 퍼즐

27 2022년 11월~12월 교회 행사안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90년대 초 청년 시절에 한 달에 한 번,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청년들과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당시 기도원 건물은 허름했지만 뜨겁게 기도하던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본당에서 집회 후에는 산에 올라가 청년들과 함께 바위에서 기도 하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는 산 기도를 처음 접하면서 산에서 장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밋밋한 신앙을 가졌던 제가 그 시절 기도하다가 은사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기도하러 다녔던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은 제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 소중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 절, 요한복음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집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이고, 감람산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주변의 인간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가족과 작별한 후에 주를 쫓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9:62)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람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제자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본주의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나의 감람산을 매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나만 단 둘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 즉 나만의 감람산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열심히 활동하였던 동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시내산 선교회’라고 기도를 사모하는 전도사님들의 모임입니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오의 기도를 드렸고 매주 금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도에 있는 광주 기도원을 찾아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모임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영적으로 탈진할 때면 그때를 추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도사님들은 연말이 되면 졸업하는 선배들로부터 기도바위를 하나씩 물려 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새롭게 들어온 후배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자신이 3년 동안 엮드려 기도하였던 기도의 바위를 물려주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기도바위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후배들은 선배들이 터를 닦은 그 기도바위를 영광스럽게 물려받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7년이 다 되는데 그 시절 광주 기도원에서 선배님께 물려받은 이름 모를 기도바위는 제 인생에 잊지 못 할 감람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결혼에 대한 응답도 받았고 임지에 대한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곳에 엮드려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제목 중에 하나였던 더 강한 성대를 위한 기도도 전임 전도사 때 한 번, 부목사 때 한 번, 두 번에 걸친 성대폴립 수술을 통해 완전히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방입니까? 주방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기도실입니까? 본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찾고 있는 기도원입니까? 그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아침이건, 밤이건 여러분의 감람산으로 가서서 그 곳에서 여러분 보다 먼저 가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이토록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이 가을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7절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다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살롬! 

익숙함



김 두 리 목사

우리는 하루의 삶에 익숙하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잠시 말씀을 보며 묵상한다.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한다. 점심을 먹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잠을 잔다.

하루를 돌아보면 익숙함의 나열이다.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하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익숙하다. 출근하는 것이 익숙하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익숙하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다. 익숙함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익숙함을 벗어나자, 하늘의 신비를 맞본다. 하늘의 기적을 맞본다. 아침 햇살의 찬란함을 온 몸으로 느낀다. 비 온 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에서 영롱함을 느낀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감사의 기적을 맞본다. 나도 모르게 찬양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만발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느낀다. 오늘도 내가 살아 있음이 기적이라고 고백한다. 이 모든 것이 감사로다.

익숙함을 깨뜨리자, 하루의 일상에 감사가 흘러나온다. 오늘도 호홉함이 감사하다. 잠에서 깨어남이 감사하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식사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 오늘도 학교 갈 수 있음이 감사하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이 감사하다. 일을 하고 있음이 감사하다.

익숙함에서 깨어날 때, 교회 올 수 있음에 감사를 느낀다.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 하나님을 앎이 그 무엇보다도 축복이고 은혜이다. 익숙함은 나를 평안하게 한다. 익숙함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고요하고 잔잔하게 한다.

그러나 익숙함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익숙함을 경계하자. 익숙함은 나의 삶을 지루하게 만든다. 익숙함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자. 익숙함을 깨뜨리자. 익숙함을 허물어 버리자. 익숙함은 나의 영적 생활을 나태하게 만든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참된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맞본다.

일상의 익숙함은 자유롭지만 영적인 익숙함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불러온다. 영적 익숙함을 깨뜨려야 한다. 영적 익숙함을 경계하자.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들지 말자. 기도가 익숙하면 감동이 없다. 찬양이 익숙하면 소리가 된다. 예배가 익숙하면 형식에 머물게 된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일상의 무력함이 깨어진다. 익숙함에서 깨어질 때 삶의 활력이 생긴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하늘의 신비와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예배 및 아웃리치 사역

필리핀 땅에서 선교의 열매를 보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예배를 위해 10명의 대표자들(곽승기 담임목사, 송승면 장로, 서재기 장로, 석상철 장로, 이은우 장로, 박영자 권사, 윤영인 권사, 이경희 권사, 윤용택 안수집사, 신재원 집사)과 함께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 예배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대구신암교회 실업인선교회와 대구동노회 남선교회에서 연합탐을 이뤄 방문한 후 같은 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더 밝기 기도를 통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대표로 권태호 은퇴장로, 이기진 장로, 석상철 장로, 이은우 장로 4명이 현지지를 방문해 준비작업을 마쳤고 그 후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좀 더 일찍 헌당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터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 이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단순히 헌당예배 뿐만 아니라 현지교회의 목회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박남수 선교사님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박선교사님이 매주 산부어나 빈민가 지역에 가서 밥퍼사역을 하시는 데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소중한 사역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청년부 아웃리치, 남녀선교회 단기선교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 신암은혜장로교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곽승기 담임목사 -

헌 당 예 배

- 2018. 11. 8. 정책당회시 해외개척교회 설립허락(위원 : 이기진, 석상철, 이은우)
- 2019. 9. 25. 교단총회시 박남수 선교사 만남(필리핀지역 교회개척에 관하여 위원들과 면담)
- 2019. 10. 30. 개척교회 택지 추천지역 방문차 출국(권태호, 이기진, 석상철, 이은우)
여러곳을 방문한 결과 현 신암은혜장로교회로 선정하고 정책당회시 상정기로 함
- 2019. 11. 8. 정책당회시 매입하기로 의결
- 2020. 1. 5.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준비위원회 모임
- 2020. 1. 19. 헌당예배참가단 마감
- 2020. 1. 20. 국내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해외여행 규제
- 2022. 10. 25.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예배 참석(곽승기, 송승면, 서재기, 석상철, 이은우, 박영자, 윤영인, 이경희, 윤용택, 신재원 이상 10명)



해외개척교회 설립을 위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3개국을 검토한 결과 기독교 국가로 선교사역을 하는데 자유로운 필리핀으로 정하여 3여년 기도끝에 감격적인 헌당예배를 드리게됨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동안 여전도회와 찬양팀까지 조직하여 목회하시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신암의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도 헌신하신 선교대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 석상철 장로 -



협력교회 방문

‘마할 까 낭 디요스’(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리핀 방문기간 중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넨 인사말이다. 환하게 웃으며 ‘까무스따’(Kamusta)(감사합니다)로 응대 해주는 필리핀사람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다. 박남수(황정숙) 선교사님은 26년간의 사역 기간동안 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된 교회가 또 3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두 분이 11개의 교회를 도우며 쉼마기술센터와 카인타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그 중 4개의 교회-예수공동체교회(저멀 목사), 주빌리장로교회(이스라엘 전도사), 기나양교회(알트 목사), 희망교회(마리벨 목사)를 직접 방문하고 선교후원금과 성도님들이 보내준



물품들을 전해주었다. 각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비전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결같이 성령충만하고 열정적인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며 필리핀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비나바띠 기따!(축복합니다) 🙏

- 서재기 장로 -



도착 후 첫날 선교지 방문과 밥퍼 사역이 예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밥퍼사역을 할 산부어나의 사정이 열악하여 직접 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쉼마기술 학교에서 밥과 잡채를 가지고 와서 나눠줘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른 아침을 먹고, 준비해야 하는 양이 많았지만 200~300명이 먹을 잡채에 넣을 양파, 당근, 파, 줄기콩 등 야채를 썰기 시작했다. 출발 시간을 약간 늦추어서 다 준비하였다.

우리가 선교지 방문할 동안 황

산부어나 밥퍼사역

선교사님(부인)과 현지 교인들이 밥하고 잡채를 해서 산부어나에서 만나기로 했다. 선교지 방문을 하고 산부어나에 도착한 곳에는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더운 건물 안 뻘뻘하게 앉은 친구들이 현지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활동을 따라 하는 모습에서 눈물이 울컥하며 올라왔다.

250여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밥과 잡채를 받아가는데 손과 마음이 바빴다. 옆에서 선교사님이 도와 주셔서 마지막 친구까지 밥과 잡채를 남김도 모자람도 없이 딱 맞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밥퍼사역이 처음에는 질서가 없어서 질서와 규칙을 잡는데도 힘들었다고 하셨다.

선교사님과 현지 동네를 둘러

보는데 나지막한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수탉이 줄에 매여 살고, 개는 줄없이 돌아다니며 마을 공터에서는 동네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농구를 하고 있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나와있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좁은 지역에 5,000여 가구가 살고 있고 학교나 공동 시설이 열악하여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성도 여러분께서 선교지 방문에 적극 참여하시길 권한다.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느끼고 감사와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이경희 권사 -

짧은 간증 모음



송승면 장로

✚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곳에 내가 참여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빈곤과 싸우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신암은혜장로교회에 인재를 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세워지고 대구신암교회에 돌아가서 이런 체험을 우리 대구신암교회 교인들이 함께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박영자 권사

✚ 직장 생활을 1주일간 미루고 선교지 방문을 통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애쓰신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약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했으며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순수한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고 필리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윤용택 안수집사

✚ 선교지 방문을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예배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에서 드럼과 기타로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선교지를 위해 마음으로 돕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우 장로

✚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시대에 태어나야 합니다!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신암교회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하셔서 좋은 분들과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영인 권사

✚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과 동행하심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필리핀 사역자들과 교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또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원 집사

✚ 5박6일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방문 동안 모두 은혜로운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당사역을 하실 때 장로님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시면서 정말 진지하신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폭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 번 감동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선교 현지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 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활동사진 모음



산부예나 동네 아이들과



산부예나 지역 아이들



쥬빌리교회 방문



산부예나 밥퍼사역



산부예나 밥퍼사역



헌당예배 설교-우리가 꿈꾸는 교회



신암은혜장로교회 여전도회 특송



현지교회 예배 참석



감사패 전달



선교헌금 전달



희망교회 방문



필리핀 교회 현지 사역자들과



박남수 선교사님 부부와 웨마기술학교에서

“찾았다~ 하나님 나라”



2022년 영아부 성경학교의 주제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주제로 하여 7월 10일과 17일, 두 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찾으러 떠나는 즐거운



김수경 권사
(영아부 부장)

여행이었습니다. 저희 영아부에서는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워 가길 소망하며,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 강습회에서 배운 내용을 모든 교사와 전달 강습을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들을 향한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금요기도회와 교사릴레이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하루 하루 성경학교를 기다렸습니다. 2주간 진행된 성경학교에는 주제와 연계된 특별 활동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산을 활용하여 하트를 훌쩍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하트를 붙여주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활동을 해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멀리 나눌 것을 다짐하며 ‘숨숨~ 하나님 나라’라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새로미와 이로미 버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걸기 시작한 어린이들도 있지만 즐겁게 몸을 흔들며 찬양하고 비행기를 날리며 특별 활동들을 따라하는 영아부 친구들을 보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들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새롭게~새롭게~ 교회를 찾았다! 하나님 나라~♪

♪ 이롭게~이롭게~세상을 찾았다! 하나님 나라~♪



대구신암교회 유치부 친구들의 청아하고 힘찬 찬양이 유치부실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던 여름성경학교가 재개되면서 주제 찬양과 율동으로 여는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과학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세상속에서 이를 이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로 배우고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던 물풍선 터뜨리기, 잼과 과자를 이용한 얼굴 만들기, 성경학습을 통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즐거웠던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행복한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주제



이미숙2 집사
(유치부 교사)

성구처럼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린이로 자라 주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

복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WHO ARE WE? 복음 라이더스”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조금은 자유롭게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WHO ARE WE? 복음 라이더스”란 힘찬 외침으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 복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김영미 권사
(아동부 부장)

서기 위해서, 코너학습을 통해 서로 협동하여 주어진 과제를 풀고, 복음 라이딩 말판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마을 복음라이딩’ 활동으로 섬김과 기도를 실천하며 기부물품을 나누는 활동, 큰 볼에 적힌 기도문을 읽고 친구들이 직접 쓴 기도를 함께 읽고 기도하는 활동인 ‘기도 볼’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나는 물놀이를 통하여 서로 교제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눔으로써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보낸 시기가 길었기에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어느때 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활동들이 기억에 남아 복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동부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대구신암 교회의 미래인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HO ARE WE? 복음 라이더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물총 놀이할 때는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저학년 동생들과도 더 친해져서 좋았습니다. 맛있는 점심, 저녁과 떡볶이 간식을 먹으니 하루가 알찬 느낌이었습니다. 조별 점수를 모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나도 모르는 의욕이 생겨 조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동하는 것도 처음엔 살짝 귀찮고 유치했는데 할수록 재밌고 더 하고 싶어져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실과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 어리지만 나도 복음을 전해야하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성경학교 중에서 이번 성경학교를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아 뿌듯했는데 이제 아동부에서 마지막 성경학교여서 아쉬운 마음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정온유 어린이(아동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느새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의 일상이 변하고 익숙해져 갈 즈음에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중등부의 교제 속에서 감사하게도 1박 2일의 여름 수련회를 봉화 비나리마을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먼저 엄주선 강도사 순교 테마공원을 방문하여 6.25전쟁에서 공산군들로부터 믿음을 지키신 엄주선 강도사의 순교 이야기를 순교 당시 시무하셨던 청송 화목교회의 권오정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고백으로 지켜져 왔고 이제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고 봉화의 숙소에 도착해 이상원 전도사님의 진행 하에 성격유형검사 중 하나인 MBTI를 통해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성향을 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또한 자신과 다른 지체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해진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다시 사랑으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제의 시간이 끝나고 봉화 청량산의 맑은 공기와 함께 저녁으로 맛있는 바비큐를 먹고 찬양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늘 부르던 찬양이었지만 수련회 날 만큼은 더욱 깊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년마하나임을 섬기시는 신일철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중등부 친구들이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기도회의 뜨거움 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기도제목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아침예배를 드리고 청량산에서 무더운 여름을 이길 래프팅을 하였는데 강물을 타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터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임 광 근 성도
(중등부 교사)



믿음의 터 위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2학년 정예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동부 이후로 3년 만에 수련회를 가는 것이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수련회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유적지 탐방도 가고, MBTI 검사를 하며 서로의 성향을 알아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녁식사 시간 때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곤충도 잡고 축구도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예배 때에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크레이션까지 하고 나니 수련회의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래프팅을 갔습니다. 조금은 힘도 들었지만 너무나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레크레이션인데, 성경과 관련된 문제를 맞추고 평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로 인해 친구들과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성경에 대해 공부하며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정 예 찬 학생
(중등부)

‘네 삶의 주인을 기억하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졌던 수련회를 정말 오랜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들떠있었고 기대하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저는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고3인데 매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양팀까지 섬기면 잘하고 있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제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을 은연중에 사람에게 드러내고 칭찬받길 원했고, 수련회를 그 도구로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날 저녁집회 때 토다 찬양팀의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실력이 부족했기에 처음으로 집회 찬양인도를 하게 되면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찬양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대중 가요처럼 불렀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날 집회 때 더콜 미니스트리 찬양팀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을 부르고, 그 가사를 묵상하는데 마음 속에 깊은 찢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보여주는데 너는 어찌 나를 세상과 저울질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며 보여주기식 모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큰 고통이 있었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집회를 마치고 나니 제 마음 속에 갑자기 깊은 불안이 생겨났습니다. 내 고백이 집회의 뜨거운 분위기와 빠른 음악에 취해서 나온 것은 아닐까. 내가 느낀 이 환희와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의 답은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를 항상 생각하면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는 예배’가 아닌 ‘또 다시 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제 인생과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수련회를 마친 뒤로 저는 항상 ‘네 삶의 주인을 기억하라’는 구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의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



김민재 학생
(고등부)



“리빌딩 [REbuilding]”

이번 수련회는 울산으로 다녀왔는데 바다도 보고 등산도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곳 저곳 이동할 때는 조별로 함께 움직이며 재밌게 친목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 드릴 때 오랜만에 오는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찬양 팀으로 섬기는 수련회는 처음이었기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예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에 지친 우리의 영혼들을 리프레시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련회 때 했던 다짐들을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마하나임이 되길 기도합니다. ☺



정수용 성도
(청년 마하나임)



“왕을 환영하라”

코로나로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제약 속에서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기였지만 임원회의를 통해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여름성경캠프를 올 해는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7월 10일과 17일,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학교 일정 광고가 나가니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자고 와요?” 하며 들뜬 마음을 보였습니다.

2022년 사랑부 여름캠프 주제는 “왕을 환영하라!”이며 성경 구절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마21:5)였습니다.

우리 사랑부 예배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사랑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며 예배실은 축제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든 photozone이 되어 서로서로 사진을 찍으며 즐겼습니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는 자리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온몸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세상 어느 모습보다 더 귀해보였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도 이제 지나온 듯 합니다. 우리 벌써 2023년 여름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감사,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대구신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옥집사
(사랑부 교사)

가을학기 유니게학교를 개교하며

유니게학교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라는 표어로 디모테의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유아기 어린이 활동과 부모교육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엄마 거위를 따라가는 아기 거위가 로고입니다. 아기 거위는 알에서 부화되어 먹이를 구하는 법과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 하늘을 나는 법 등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엄마 거위를 통해 배웁니다. 이와 같이 유아들도 아기 거위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며 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과 지도가 중요합니다.



조 순 래 전도사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 있어 유아기는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따뜻하고 평안하며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을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독교적인 부모상을 정립하고 자녀들의 발달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양육의 원칙들과 훈육, 대화 등의 방법들을 훈련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가정에서 믿음의 양육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니게학교의 교육내용입니다.



대구신암교회의 행복한 유니게학교에서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어린이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2022년 봄 학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주제로 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녀들의 신체 발달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여야 할까요?'와 '어린이 언어발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할까요?' 등으로 부모교육을 하였습니다. 어린

이들은 '건강한 내 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공작활동, 요리활동으로 구성하여 토요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과 밴드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활동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나누며 격려하였습니다. 특히 요리 활동의 경우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창의적인 모습이 돋보여 함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해 가을학기의 말씀과 어린이 활동의 주제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며 부모교육의 주제로는 '어린이 이해하기'와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하기'입니다. 가을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특별 활동들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여 피자 만들기 체험학습과 가을 운동회, 대그룹활동으로 축감놀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활동하고 참여함으로 사회성을 기르고 이웃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가을학기가 현장에서 진행됨에 따라 서로 마주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대가 큼니다. 행복한 유니게학교에서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섬기며 수고하시는 부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사랑이 넘치는 겨자씨토요학교

겨자씨토요학교는 대구신암교회 복지위원회 산하 장애인지원부에 소속된 팀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주말생활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만나복지 작성현금을 통한 지원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2학기 동안 격주로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매회 정기적으로 음악치료 전문 강사를 모셔서 악기와 노래와 놀이를 통한 다양한 음악 활동과 함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순차적으로 미술, 공예, 원예, 종이접기, 요리, 풍선아트 등을 배치함으로 소근육과 창의성, 집중력 등을 높이려하고 있습니다.

겨자씨토요학교는 조금해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원칙입니다. 어떤 발달적인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여유롭게 발달 단계에 맞추어 아주 조금씩이라도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많은 교사들이 자원하여 도우며 섬겨주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보호자들도 함께 동참함으로 가정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활동으로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사들이 더 활짝 웃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더 적극적인 교사들의 활동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섬김으로 인하여 교사 자신들이 마음의 평온함과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지원하게 하여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짐으로써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만 7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눈여겨보셨다가 다음 학기에 광고가 될 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만나 소통하며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샬롬!



김 정 희 목사



아름다운 신앙수련회에 다녀와서

지난 9.27(화) 아름다운 신앙수련회를 대구 화원유원지와 수목원에서 개최
토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기획하고 현지
답사 등 행사준비에 전념하신 박송기 담임목사님과 수고하신 여러 분들의 노고
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원유원지는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1995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각종
모임(친목회, 동창회, 종친회 등) 각 단체들의 행사장이요, 식당 주점, 상점 노점
등이 유원지를 점령하여 마치 시골 5일 장터를 방불케하는 무질서한 곳이었는
데 27년이 지난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화되어 기분이 상쾌하였습니다.

역대 달성 군수들의 지역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문진 유람선 선착장 주변에 2인승 보트가 30여 척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주변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때 유람선 한번 탑승해 보고 싶었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난할 것 같아 참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능이버섯 삼계탕 점심은 어떻게나 맛이 좋았던지 2년 전에 식도암 수술로 식도가 좁아진 것도 잊은
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오랫동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도움으로 어리던 식물들과 나무들이 이젠 고목이 되어 울창한
식물원을 한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즐겁고 추억에 남을 행복한 수련회였는데
참석자 40여 명 중 남자는 5명 밖에 되지 않아 다음부터는 좀 많이 참석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할렐루야~! 🌿



유 문 권 은퇴집사
(3교구 효신2구역)

아름다운 신앙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살롱~! 코로나 여파로 2년간 아름다운 신앙수련회를 갖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 해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눈부신 가을 햇살을 맞으며 교역자와 함께 먼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행사로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을 열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충만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담임목사님의 바람이 있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활동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감사의 시간을 갖기로 하자는 의견에 마음을 모아 대구 근교 낙동강의
대표적인 사문진 나루터와 생태체험관 대구수목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탁트인 시야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낙동강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유람선을 타는 내내 마냥 아이들같이 좋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생태체험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1900년대 리처드 사이드보텀 선교사 부부가 사문진 나루터로 피아노를 가지고 왔다는 역사 이야기를
듣고 놀라웠습니다. 보양식 식사를 하고 잘 조성된 수목원을 산책하며 장로님의 찬조로 차와 아이
스크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육체가 연약
하셔서 대구 근교 가까운 거리이고 볼거리가 많아 즐거운 하루였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준비 위원
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처럼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매일 매일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아름다운 신앙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을 여정에 함께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



권 원 자 권사
(3교구 경산1구역)

대구신암교회 신암동산 공원묘원 준공예배

2022년 9월 4일(주일) 오후 4시 경북 고령군 성산을 사부리에서 신암동산 공원묘원 준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암동산을 자연장지로 조성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령 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공원묘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암동산 조성공사 경과보고

- 1967년 10월 10일 소유권이전 면적 26,280㎡
대구~고령순환 도로 및 진입도로 공사 편입 후 면적 21,247㎡(6,437평)
- 2020년 11월 정책당회에서 신암동산 조성하기로 결의함
- 2021년 3월 (주)숲속토목 설계사무소와 설계 용역 계약
허가 면적 1,150㎡ 약 200기정도 안장계획 설계
- 2021년 4월 9일 지질조사 완료
- 2021년 4월 20일 고령군청 종교시설 자연장지 조성공사 허가 접수
설계 변경하여 면적 1,740㎡
- 2021년 7월 5일 종교시설 자연장지 조성공사 허가
- 2021년 7월 14일 특정 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 2021년 7월 21일 두 필지 분할측량(신암동산 1,740㎡ / 삼성교회 990㎡)
- 2021년 8월 7일 소나무 재선충 방제 허가
- 2021년 8월 22일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 기공 예배
- 2022년 1월 14일 설계변경 허가(면적 : 1,933㎡)
- 2022년 6월 24일 고령군청 - 종교시설 자연장지 조성공사 준공
최종 허가 면적 1,933㎡



신암동산 공원묘원 준공예배



신암동산 공원묘원



커팅식



준공예배 사회 - 김태중 장로(신암동산위원장)



대표기도 - 이기진 장로



설교 - 곽송기 담임목사



축사 - 허현순 원로장로



꽃다발 전달(이은우 장로)



추진위원들 인사



단체사진

photo News

교사대학 (22.7.3)



교사헌신예배 (22.7.3)



아름다운학교 상반기 졸업식(22.10.7)



유치부 성경학교 (22.7.9)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22.7.23~24)



여름연찬회 준비를 위한 교육자 선교회 기도 모임 (22.8.4)



이순삼 권사(흥준표 대구시장 부인) 방문 (22.8.28)



신암동산 이장 (22.9.1)



굿네이버스 찬양콘서트(조수아) (22.9.2)



2022 하반기 일대일 수료 및 입학식 (22.9.16)



아름다운 신앙수련회 (22.9.27)



Photo News

가을체육대회 (22.10.9)



창립77주년 기념주일에배 (22.10.9)



가을 특별새벽기도회 (22.10.15)



권사회 주관예배 (22.10.16)



고등부 최현빈 학생 입교 (22.10.16)

추계부흥회 (22.10.19)



어와나올림픽 대회 (22.10.22)



유치부 가을어린이대회 수상(22.10.23)



필리핀 신암은혜장로교회 헌당예배 파송식 및 헌지 활동





김성영 & 윤선경(유건, 유현) 선교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3-14)

Kolote Yesu! 콜로테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신암교회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포콧부족의 매일의 삶속에도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포콧 소식 보시며 기도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케냐에서도 대구신암교회를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림 속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한국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케냐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옥수수는 오늘을 살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120포대의 옥수수를 구입해서 11개 교회의 각 마을을 다니며 성도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약 1,080가정이 10키로의 옥수수를 받았고 일주일 정도 주식인 우갈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심한 배고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식량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고단한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콧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TIKI(티키)교회

개척 된지 3주된 티키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티키 교회는 웨스트포콧 경계지역에 있고 콜로와에서 차로 1시간 30분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포콧지역은 너무 넓는데 아직 세워진 교회는 너무 적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는 성도가 겨자씨가 되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벌써 나뭇가지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모인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티키교회에는 부모님 없이 스스로 어린 동생을 업고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아원 사역

지난 1년간 나이로비에서 포콧을 오가며 아이들을 만나다가 다시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배우고 만들기도 하고, 잘못하면 혼도 내고 하루하루가 금방 갑니다. 2017년 대구신암교회 아웃리치팀이 주고 가신 십자가 팔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영어책들로 미니도서관을 사무실에 만들었습니다. 포콧은 책이 귀해서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가 없는데 선명한 칼라로 된 그림책들을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번 기도를 부탁드렸던 첼리모는 HIV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인지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고 앞으로 평생 3가지 약을 먹어야합니다. 첼리모를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 예배



▲ 십자가 팔찌 만들기



▲ 책 읽는 아이들



▲ 고아원 아이들 이발

태양광 설치

하나님의 은혜로 포콧 사역지에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판넬 8장과 배터리 8개로 고아원과 사택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콧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요. 밤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고아원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학교에서 배운 공책을 복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판넬 공사를 마치고



▲ 밤에도 환한 포콧 사역지

포콧에서의 일상과 기도제목

포콧에서의 하루하루는 참 빨리갑니다. 2주 전에는 단비가 내려 식수로 마실 빗물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직원들과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손볼 것을 수리하고, 예배드리면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기도해주신 덕분에 결석을 배출하고 나서 통증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예전 같지는 않기에 건강에 신경쓰며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기숙사학교에 다니는 유건, 유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갑자기 내린 큰 비로 고아원 남자화장실이 꺼지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공사와 고아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미니 운동장을 만들고 고아원 울타리를 다시 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그늘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크레세교회의 예배처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모든 공사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신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출석 성도

7월



김건우 성도



권혜숙 성도



김영준 성도



주소민 성도



최은미 성도



8월



배미경 성도



이세라 성도



김동석 성도

9월



태건우 성도



전호근 성도

10월



김미지 성도



김원기 성도



이순옥 성도



최명옥 성도



노윤현 성도



배경희 성도



백은서 성도

첫 출석 아기



김윤우

21년 10월 25일

아빠 : 김영준 성도
엄마 : 심예은 성도



김서준

21년 10월 25일

아빠 : 김영준 성도
엄마 : 심예은 성도



이소운

22년 4월 3일

아빠 : 이재훈 집사
엄마 : 공한미 집사

I ♥ Jesus...

온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퍼즐

1	2						15	16		17
					18					
	3		4		19	20				
30										
	5									
			6			21	22			
	7								23	
			8							
	10		9					24	25	
						26				
11		12		14	27					28
		13						29		

가로 열쇠

-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겔48)
-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요1)
- 초대교회 사역자, 바울은 심었고 000는 물을 주었으되(고전3)
-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산지(수14)
-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저주하고 돌을 던진 사람(삼하16)
- 르호보암의 이스라엘 공격을 말린 선지자(왕상12)
-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남편(룻1)
-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켜 칭찬받은 교회(계3)
-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곳(삼상7)
- 로마서를 기록한 인물(롬16)
-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된 곳(미5)
- 바알과 다툼, 기드온의 별명(삿6)
- 다니엘의 친구,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단1)
- 형식적인 경건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마23)
-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사62)

<당첨자 명단>

김행자 전인아 이춘옥 정필한 김경숙3
박경자 김미애2

성경퍼즐에 대한 정답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름 문자로 전송)

보내실곳 : 김정학 안수집사(010-6505-0790)

응모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로 열쇠

- 구원하옵소서(마21)
- 야곱이 세겔에 세운 제단의 이름(창33)
-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 구약 15번째 책의 제목
- 바울의 동역자로 오네시모의 주인(몬1)
-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성령의 형체(눅3)
-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창11)
- 여호와와 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대상13)
- 열리라(막7)
- 수고롭게 함,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대상4)
- 예레미야 시대까지 선조의 교훈을 철저히 지킨 족속(렘35)
- 아람의 대군을 찬양대를 앞세워 물리친 유다의 왕(대하20)
- 권위자,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행11)
- 바울의 환상에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요청한 지역(행16)
-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러진 사람(민6)
- 모세가 이스라엘자손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지정한 산의 이름(신27)
- 다툼,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한 곳(출17)
- 행복하고, 화목하고, 충만한 교회

139호

성경퍼즐 정답

“온 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퍼즐”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네	게	브		리	브	가
		엘				버
가	다	라				나
		헤	브	론		움
베	드	로				
		이	스	마	엘	
	고			태		
	모	리	아			
사	라					

2022년 11월~12월 교회 행사안내



11 월 1일 (화)	월삭기도회
6일 (주일)	중창단 발표회, 제직회
10일 (목)~12일 (토)	정책당회
12일 (토)	행복한 유니게학교 종강
13일 (주일)	구역모임
14일 (월)~18일 (금)	다니엘 기도회
16일 (수)	연합중보기도모임
17일 (목)	수능일 기도회
18일 (금)	구역연합기도회
20일 (주일)	추수감사주일,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23일 (수)	권찰회 방학
25일 (금)	대구아름다운학교 종강
27일 (주일)	신임서리집사교육 시작
12 월 1일 (목)	월삭기도회
4일 (주일)	이웃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새가족 환영회
10일 (토)	교역자 송년기도회
11일 (주일)	유아세례부모교육(1), 제36회 송페스티벌
18일 (주일)	유아세례부모교육(2), 교회학교 성탄발표회
18일 (주일)	유아세례 문답
25일 (주일)	성탄절, 칸타타, 신년도 봉사자발표, 유아세례식, 예결산 공동의회, 사랑의선물 나누기
31일 (토)	송구영신예배

교회학교

- 영 아 부 - 주일 오전 11시 / 나사렛실
- 유 치 부 - 주일 오전 11시 / 소예배실
- 아 동 부 - 주일 오전 11시 / 엠마오실
- 중 등 부 - 주일 오전 11시 / 미스바실
- 고 등 부 - 주일 오전 9시 / 미스바실
- 어 와 나 - 주일 오후 2시 / 엠마오실
- 사 랑 부 - 주일 오전 11시 / 베데스다실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 새가족부실

DAEGU
SHIN AM

PRESBYTERIAN CHURCH



장년부

- 주일낮예배 1부 - 주일 오전 7시 30분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2부 - 주일 오전 9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3부 - 주일 오전 11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4부(청년마하나임) - 주일 오후 12시 50분 / 대예배실
- 주일오후예배 - 주일 오후 2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1부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2부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중예배실
- 금요성령집회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30분 / 중예배실

신암평생교육원

- 대구아름다운학교 - 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오후 9시
성인 대상 / 국어(주, 야), 오카리나, 영어, 컴퓨터
- 신 암 실 버 대 학 -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만 65세 이상의 남녀 대상(종교와 학력 무관) / 건강, 교양상식, 신앙, 취미오락
- 행복한유니게학교 -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10분
생후 18개월~48개월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예배, 특별활동(동화구연, 미술치료, 뮤지컬 관람, 유아스포츠, 야외학습 등), 부모교육

우리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Our purpose is to know, worship and obey Go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발행 : 광송기 / 주간 : 김두리 / 편집장 : 김종광 / 편집위원 : 김정학 최진숙 허병기 김민주
41208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4길 17(신암동)
<http://www.shinam.or.kr> ☎ 053) 955-7755